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

김복희* · 남윤숙**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강사* ·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교수**

The Esthetic Features of Femme Fatale Fashions in Movie <Crue Intention>

Bok-Hee Kim* · Yoon-Sook Nam**

Lecturer,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Professor,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5. 12. 20 토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sthetic features of femme fatale character fashions, which are shown in Movie <Crue Intentions>.

The feature of evil femininity is the attribute of evil which brings men to ruin by the dangerous, cunning, and cruel trick, and is expressed in black color, red color, and slash fashion. This fashion shows the dark reverse side of women's sexual desire in relation to anxiety, evil, and death.

The feature of sensuality evokes physical pleasures or desires, and maximizes the exposure of sexual regions by tightening or loosening women's body. In the fashion expressing this feature, the forms are fit or loose silhouette, and the colors are black and red, and the materials are soft. This fashion seems to deconstruct the past concept of sex consciousness and emphasize the independent and autonomous femininity.

The feature of positiveness combines feminine elements with masculine elements in relation to power elements. This feature is expressed in tailored suit and trousers, with few patterns and details, and in black color and gray color. This fashion reflects the aggressive, challenging, and independent femininity, and expresses the potential defense for the weakness and danger of female body.

The feature of purity expresses the earnest and truthful mind, and is expressed in the soft and light one-piece dress, the elegant suit, and the pink color and black color fashion. This fashion shows angel-like and reliable womanly beauty, but at the same time shows women's attribute which changes their behavior and thinking every moment, so that this fashion shows women's double-sided attribute which combines women's weakness and violence, or tenacity and conflict.

Key words: Femme Fatale(팜므 파탈), evil femininity(악녀성), sensuality(관능성)

I. 서론

팜므 파탈(Femme fatale)은 치명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으로 남성을 파멸시키는 여성성의 한 개념으로, 19세기 후반 문학에서 등장하여 오늘날 영화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남성을 위협하고 가부장 중심의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위험 인물로 묘사되던 팜므 파탈은 사악하고 관능적이며 드라마틱하여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므로써 영화속에서 미스터리와 유혹을 상징하는 매혹적인 여성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영화에서는 의상,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으로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1999>은 코데를로 드 라끌로(Choderlos de Laclos)의 소설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1782>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영화화한 작품이다. 18세기 말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귀족의 생활상을 날카롭게 비판한 소설 <위험한 관계>는 현재까지 총 6편의 영화로 만들어졌다¹⁾. 이 중 팜므 파탈의 캐릭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되는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1999>을 중심으로 팜므 파탈 캐릭터에 따른 의상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서 팜므 파탈 이미지는 영화속 등장인물인 캐더린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다. 캐더린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고 누구라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간교하고 오만한 팜므 파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에 있어서 캐더린의 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므 파탈 캐릭터 의상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팜므 파탈 캐릭터인 캐더린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팜므 파탈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영상물을

참고할 수 있는 3편의 영화속에 나타난 팜므 파탈적 인물의 의상을 분석하고 이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소설 <위험한 관계>를 각색한 각 6편의 영화는 시대배경 및 설정된 상황이 다르더라도, 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팜므 파탈의 캐릭터는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관련 논문 및 학술지, 단행본,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비디오 영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팜므 파탈 이미지의 개념 및 특징

1. 팜므 파탈의 개념

팜므 파탈(Femme fatale)에 대해 사전적 의미는 프랑스어로 'Femme'는 '여성', 'fatale'은 '숙명적인, 운명적인'을 뜻하는 용어이다²⁾. 그 의미는 남자를 유혹하는 파멸적인 여자,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여자로 명시되어 있다³⁾⁴⁾.

이명옥⁵⁾은 색을 탐하는 여성, 냉혹하고 잔인한 요부, 흡혈귀같이 남성의 정액과 피를 빨아 생명을 이어가는 사악한 여자,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적 여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김지영⁶⁾은 팜므 파탈을 거부할 수 없는 관능적인 매력과 신비한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해 파멸로 몰고 가는 '관능적인 악녀'의 개념으로 정의내렸다. 이미선⁷⁾은 팜므 파탈을 '요부'로 함축시켜 아름다움과 위협적인 어면 것을 지닌 여성으로 보고, 관능, 간계와 연결된다고 보고, 여기에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성, 당당하고 지배적인 여성, 명예욕과 관능의 아름다움을 지닌 적극적인 여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화진⁸⁾은 팜므 파탈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인식하여 남성들을 유혹하여 파멸에 빠트리는 여성 혹은 요부 등의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권수현⁹⁾은 팜므 파탈을 지배적인 여성과 이중성을 가진 여성으로 제시하였는데, 냉혹하고 차가운 여성으로서 '카리스마적인 악'으로 규정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진 여성, 그리고 관능적이고 잔인하며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연약함, 순진성, 무해함 같은

선한 면을 내포한 이중적 이미지를 갖는 여성을 제시하였다. 임현주¹⁰⁾도 팜므 파탈의 이중성을 제시하였는데, 겉으론 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겉모습과 다른 사악함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팜므 파탈은 냉혹하고 적극적이며, 잔인하고 사악한 속성을 가진 여성으로, 위협적이며 지배적인 존재, 매력적이며 자아도취적인 신비한 존재 등으로 인식되어, 팜므파탈 이미지는 악녀적, 관능적, 지배적, 이중적, 나르시시즘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2. 팜므 파탈 이미지의 특성

팜므 파탈의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문학을 통해서였다. 19세기는 '성답론의 시대'로서 여성혐오적 시각이 가부장적 시민사회 속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여성들과 맞서던 시기였다¹¹⁾.

당시 문학작품이나 소문에는 성녀와 악녀로 구분되는 양극화된 여성 이미지가 종종 대두되었다. 남성들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여성을 성녀 이미지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성 및 관능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상을 요부적·악녀적 성향으로 구분하고, 이 주제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의 여인이 팜므 파탈이다.

19세기 라파엘 전파 화가인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는 그의 작품 '릴리트(Lilith)¹²⁾'에서 남성을 유혹하고 교살시키는 잔인한 악녀 이미지를 시각화하였으며, 그가 그런 릴리트의 모습은 이후 팜므 파탈의 전형이 되었다. <그림 1>의 릴리트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 약간 벌려진 감각적인 입술, 뒤로 젖혀진 긴 복과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은 최면적인 분위기와 성적 매력을 가진 미인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세기말 팜므 파탈상의 선형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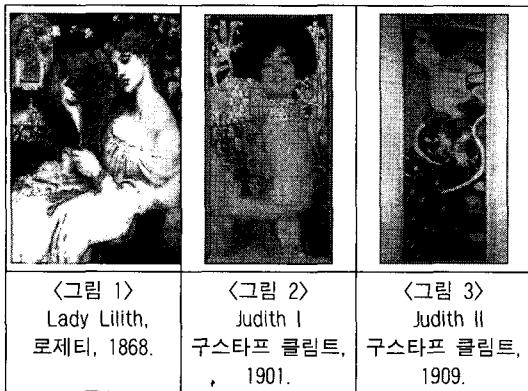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은 19세기 상징주의 화가 클림트(Gustave Klimt)¹³⁾가 그린 유디트(Judith)이다. 구약성서속 인물인 유디트는 나라를 위해 적장을

자신의 미모로 유혹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여성이지만, 예술가들은 그녀의 영웅적 행동보다 에로틱함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유디트는 커다란 칼과 남자의 잘린 머리가 그녀의 상징물이 되었고, 관능적이며 잔혹하고 에로틱한 요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유디트는 적장의 목을 베어 들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만족한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취하여 당당하고 지배적이며 잔혹한 여성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유디트는 황금빛 문양이 새겨진 부드러운 의상을 걸치고 한쪽 가슴과 배꼽을 드러낸 모습을 하여 황금빛 배경과 함께 이국적이며 신비한 나르시시즘이 표현되고 있다. 그녀의 부드럽고 연약한 겉모습에는 공포와 잔혹함이 서려있는 내면세계가 동시에 표현되어 팜므 파탈의 이중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녀의 검은 눈썹과 살짝 내려다보는 눈, 한껏 부풀려진 검은 머리카락은 새하얀 피부와 붉은 뺨, 붉은 입술과 강한 색상대비를 이루어 관능적인 요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유디트는 갈고리같은 손가락으로 적장 훌로페르네스의 머리털을 낚아채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도록 훌러내리듯 걸쳐진 유디트의 검은색 의상은 날카롭고 뾰족한 삼각형이나 사각형, 반복적인 원형, 회오리 물결 등 추상적인 문양이 복잡하게 새겨져 잔인하고 위협적이며 초자연적인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한껏 부풀려진 검은 머리, 검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밑의 검은 점 등은 붉은 입술, 붉은 뺨과 함께 강한 색채대비를 이루어 매혹적이고 잔인한 요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비어즐리(A. Beardsley)¹⁴⁾는 각진 얼굴에 돌출한 턱과 숏이 많은 긴 머리카락으로 나르시시즘적이고 잔혹한 팜므 파탈을 그려내고,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¹⁵⁾는 죽음과 관련하여 강하고 지배적이며, 육체적이고 파괴적인 악녀상을 묘사해내었다¹⁶⁾.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화가들이 묘사한 팜므 파탈 이미지는 내리 뜬 눈, 약간 벌린 입술, 돌출한 턱, 뒤로 젖힌 머리, 숏이 많고 길게 휘날리는



머리카락 등으로 팜므 파탈의 외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도상화하고, 이러한 도상을 통해 관능적이고 잔인하며, 나르시시즘적이고 이중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III. 팜므 파탈 의상의 조형적 특성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서 팜므 파탈 캐릭터인 캐더린은 외적으로 명문 사립학교의 학생 회장을 맡으면서 지도력을 가진 단정한 이미지의 여성이지만, 그 이면엔 나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여성으로 관능적이며 악마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캐릭터는 보조자료로 사용한 3편의 다른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험한 관계>에서는 메르퇴유 부인, <스캔들>에서는 조씨 부인,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2>에서는 캐더린이 팜므 파탈 캐릭터로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인물의 구분을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의 캐더린은 캐더린(A),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2>의 캐더린은 캐더린(B)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이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팜므 파탈 복식에 대한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색상

1) 사악함과 관능의 상징

영화를 통해 팜므 파탈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색상으로 상황에 따른 심리변화를 잘 나타낸다. 캐더린(A)는 대부분 검정색, 회색, 붉은색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검정색은 과거부터 밤과 관련하여 암흑, 악마, 욕망, 죽음과 연결되면서 관능적이고 사악한 것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왔다¹⁷⁾¹⁸⁾.

캐더린(A)의 검정색 의상은 팜므 파탈로 설정하는 중요한 기호가 되고 있다. <그림 4>의 실크 드레스는 검정색 바탕에 전체적으로 슬래쉬 장식이 있고 그 사이로 붉은색 천을 드러내어 검정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색채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상은 자신의 계략적인 사랑게임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는 캐더린의 잔인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슬래쉬 장식은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어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준다. 검정색 의상은 캐더린(B)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5>에서 그녀의 의상은 몸을 밀착시켜 인체라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의상은 등부분을 컷팅시켜 날카롭게 베어낸 듯한 절개선으로 잔인하고 암울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 착용한 것도 검정색 의상이다. <그림 6>은 캐더린(B)가 세巴斯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유혹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여기에서 그녀가 입은 란제리 의상은 검정색으로 그녀의 적극적이며 관능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18세기의 여성인 메르퇴유 부인은 <그림 7>에서와 같이 검푸른색의 로브를 착용하고 있다. 정숙한 투르베 부인을 경계하는 메르퇴유 부인은 늘 기회를 기다리며 과멸시키려는 계략적이고 악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붉은색은 지옥의 불꽃, 죄악과 분노, 위험, 욕망 등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관능적 이미지와 관련된다¹⁹⁾. <그림 8>에서와 같이 캐더린(A)의 부드러운 란제리형 의상은 드레스와 가운 모두 붉은색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붉은색 의상은 세巴斯찬을 유혹하려는 욕망과 자신감에 찬 자기만족의 기분을 반영해준다. <그림 9>의 메르퇴유 부인은 그녀의 밀실에서 세실의 애인 댕스니 기사를 끌여들여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나르시시즘적 분위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보여지는 붉은색 로브는 그녀의

숨겨진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므로써 매우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요부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조씨 부인의 의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붉은색 가마속에 앉아있는 조씨 부인은 선명한 붉은색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착용하여 그녀의 숨은 욕망을 은밀히 표현한 요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의상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은 모든 저고리에 장식된 작은 고름에 있는데, 이 고름 장식들은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씨 부인의 강한 이미지와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의 캐더린(B)는 세バス찬을 유혹해 퀘락의 길로 빠뜨리는 장면에서 광택있는 선명한 붉은색의 실크 드레스와 가운을 착용하여 그녀의 욕망과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검정색, 붉은색, 검정색과 조화시킨 붉은색 의상은 미묘하게 사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악녀적 성격을 표현하는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캐더린(A)와 캐더린(B)가 착용한 절제된 라인의 검정색 의상, 그리고 메르퇴유 부인이 착용한 겹푸른색 로브는 그들의 외모를 더욱 매혹적이면서



도 사악한 요부의 이미지를 준다. 또한 그들의 검고 짙은 눈매, 육감적인 붉은 입술은 새하얀 피부와 강한 대조를 이루며 섹시하고 유혹적인 인상을 연출한다.

2) 권력의 상징

검정색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규정된다²⁰⁾. 과거부터 남성은 주로 검정색을 복식에 사용하여 더욱 권위적이고 위엄있게 보이게 하여 지배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팜므 파탈 캐릭터에서 지배적인 이미지는 모든 남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하고, 권력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당당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캐더린(A)는 고교생의 신분임에도 성숙된 여성미를 지닌 테일러드 수트를 자주 착용하는데 그러한 의상은 거의 검정색으로 표현된다. 그녀의 검정색 수트는 사회적으로 세련된 커리어우먼의 특성을 나타내고 독립적이며 도전적인 강한 여성상을 나타낸다. <그림 13>의 조씨 부인은 다른 여성들에게서 볼 수 없는 선명한 보라색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보라색은 권력과 허영, 욕망을 상징하며 관습에서 벗어난 사람의 색으로 불륜의 색으로도 여겨지고 있다²¹⁾. 이러한 보라색은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상을 거부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조씨 부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두려



움없는 그녀의 권력과 지배력이 강조된 힘을 암시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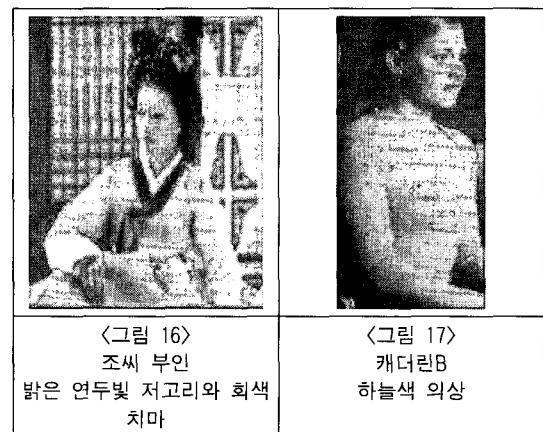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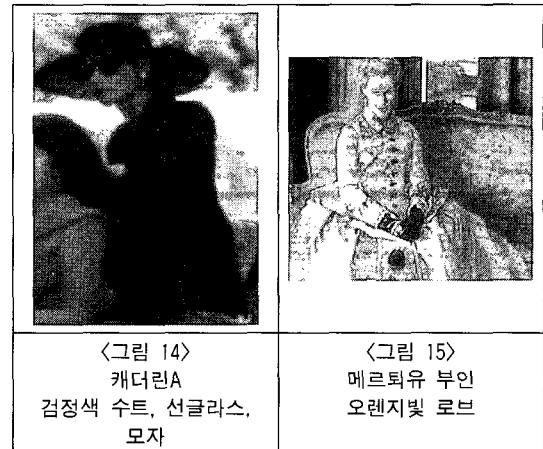


담소를 나누며 그녀를 경계하며 관찰하는 장면이다. 이 때 조씨 부인이 착용한 저고리와 치마의 색은 밝은 연두빛과 연한 회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의복은 겉으로 침착하고 정숙한 사대부 부인의 이미지로 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저고리에 장식된 작은 고름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그녀의 요부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그림 17>에서와 같이 캐더린(B)의 니트 상의는 파스텔톤의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늘색 의상은 그녀를 정숙하고 순수하며 귀여운 여성으로 보이게 하여 세실과 세실 어머니가 의심없이 그녀를 믿고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3) 이중성의 상징

이중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색상은 내적으론 잔인함과 사악함, 퇴폐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외적으론 단정함, 우아함, 순수함, 정숙함이 배어나오는 긍정적인 인상을 보이도록 한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캐더린은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보여 순진한 세실에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장면에서 착용하고 있는 수트와 원피스, 모자와 선글라스는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있다. 또한 그녀는 신앙심을 상징해주는 은빛 십자가 목걸이를 하여 절제되고 정숙한 여인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속에 마약을 숨기고 흡입을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녀는 실제로 퇴폐적이고 문란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검정색 복식과 은색 목걸이는 그녀의 양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채이며 도구이다. <그림 15>에서와 같이 메르퇴유 부인은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있는데, 이러한 인상은 순진한 세실이 그녀를 믿고 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녀는 파스텔톤의 로브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와 장갑을 끼고 있다. 이때 그녀의 의복에 사용된 색채, 즉 로브의 오렌지색, 모자나 장갑, 또는 단추의 검정색은 우아하고 정숙한 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세실을 파멸시키려는 사악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림 16>는 조씨 부인이 정숙한 숙부인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색상은 팜므 파탈 캐릭

터의 심리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악함과 관능성의 상징에는 검정색, 붉은색, 또는 검정색과 붉은색의 조화로 표현되고, 권력의 상징에는 검정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이중성의 상징에는 검정색과 연한 패스텔톤의 연두색, 밝은 회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2. 형태

팜므 파탈의 관능적 이미지는 인체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실루엣과 인체 노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상들은 여성다움의 극치를 보이며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되어있다. 영화속에서 캐더린(A)는 미니스커트에 재킷, 또는 바지에 재킷을 착용한 수트형이나 원피스,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들 옷의 실루엣은 인체의 노출을 극대화되도록 꾀드시키고 있다.

신체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데에 대표적인 의상인 코르셋은 허리를 조여 관능적인 바디라인을 형성한다. <그림 18>에서 밀착된 코르셋형 상의는 신축성있는 소재로 몸을 타이트하게 조여 풍만한 가슴선과 잘록한 허리선이 강조되어 육감적이면서도 강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해주고 있다. <그림 9>에서 메르퇴유 부인이 착용한 붉은색 로브는 여성미를 강조한 X자 실루엣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실루엣은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폭을 넓게 부풀리므로써 인체라인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부인의 로브는 화려한 보석장식, 커다란 모자, 많은 리본과 풍부한 레이스로 장식하여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며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남성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성격임을 알게 한다. 조씨 부인의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보면, 정숙한 속부인에 비해서 저고리의 길이가 짧게 하여 치마허리부분이 살짝 드러나보이도록 하고, 소매폭이 좁으며, 치마는 보다 풍성하게 하여 관능적인 요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머리장식은 커다란 가채와 비녀, 머리꽃이 등을 사용하여 조씨 부인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캐더린(A)는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로 모던하고 도회적이며 시크한 이미지를 주는 의상을 즐겨입는

데, 그러한 의상들은 대부분 디테일이 매우 절제된 심플한 검정색 수트나 원피스이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캐더린(A)이 착용한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의 구성은 남성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현대적인 커리어 우먼의 감각을 반영하여 활동적이며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상을 통해 세バス찬과의 대화에서 지지 않고 그를 부추겨 이용하려는 독점욕이 강하고 지배적인 성격임을 알게해준다. 이러한 수트나 원피스는 장식이 배제된 기본적 디자인의 복장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아하고 지적인 인상과 함께 신뢰심을 갖게 하므로 캐더린(A)의 사악한 속성을 감추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가 혼자있을땐 언제나 부드러운 실크나 레이스, 투명한 소재의 드레스나 랜제리 의상을 착용하는데, 이러한 의상들을 통해 그녀의 잠재된 성적 욕망이 내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촉감의 랜제리 의상은 캐더린(A)의 목선과 어깨, 다리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소재의 표면은 조명에 의해 더욱 광택이 나고 인체를 훌라내리듯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주어 더욱 화려하고 매혹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광택소재는 정숙한 아넷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캐더린의 섹슈얼리티를 반영해주는 의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0>에서 캐더린(A)의 핑크빛 드레스는 반투명할 정도로 빛을 투과하는 투명한 소재로 인체를 은밀히 드러내므로써 여신과 같은 신비로운 매력과 나르시시즘적인 분위기를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촉감이 부드러우며 밝고 가벼운 느낌의 원피스드레스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의상으로, 여기에는 세バス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녀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이 반영되어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캐더린(B)는 부드러운 촉감의 니트에 반짝이는 작은 스팽글을 장식한 상의와 레이스 소재의 스커트를 착용하여 순수하며 암전한 여학생의 이미지로 가장해주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팜므 파탈 의상의 형태는 인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출을 극대화하는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인체의 노출은 목선이나 어깨

선, 다리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과 피트(fit), 시스루(See-through)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재는 광택이 없는 직물이나 광택이 많은 실크소재, 또는 레이스나 투명한 소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팜므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화 속 등장인물인 팜므 파탈이 착용한 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악녀성

‘악녀’의 개념은 성질이 모질고 나쁜 여성을 뜻하며²²⁾, 악녀성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함을 의미하고, 인간 내부에 억압되어 갇혀있던 욕망과

불안한 요소들을 표출함을 의미한다.

팜므 파탈 캐릭터에서 악녀성은 잔인함을 유발하는 특징으로 규정되며, 강한 욕망의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와 연결된다. 악녀적인 이미지는 의상에서 색채와 슬래쉬로 표현되고 있다. 죽음·지옥·악마를 상징하는 검정색과 분노·죄악·위험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원피스, 수트, 란제리 및 선글라스,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에 단독으로 사용된 검정색이나 붉은색, 또는 이 두색을 함께 사용하여 대비시키므로써 암울하고 냉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의복에 표현된 슬래쉬장식은 그 사이로 보이는 색채대비를 통해 질투와 욕망, 피, 죽음, 잔인함 등의 악마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 육감적, 육욕적, 성욕적, 육체적, 자극적, 퇴폐적, 폐락적, 감각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을 지니며²³⁾, 성적 매력을 발휘하여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미모와 성적 매력을 통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팜므 파탈 의상에서 관능성은 섹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의 형태, 색채, 소재 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매끄럽고 광택 있는 천이나 코르셋으로 인체를 드러낸 랜제리룩, 뾰족한 굽의 하이힐, 투명 스타킹, 슬릿이 들어간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에 의해 드러난 다리선, 목선을 깊이 파 어깨를 드러낸 네크라인 및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체에 피트시키게 만든 의복 등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인체를 드러내므로써 관능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실크와 같이 광택이나 촉감이 좋거나 망사나 레이스와 같이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옷들은 시스루를 통해 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색채에서는 검정색이나 붉은색을 통해 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적극성

팜므 파탈 캐릭터에서 적극성은 권력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강한 소유욕과 지배욕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한 도전적,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된다. 팜므 파탈 의상에서 적극적 이미지는 착용하는 있는 의복의 아이템과 색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양과 장식적 디테일을 배제시킨 테일러드 수트나 바지, 재킷을 착용하고 공격적, 도전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뾰족한 굽의 하이힐을 착용하였으며, 색상으로는 권력과 위험을 상징하는 검정색, 회색을 사용하여 독립적, 지배적인 남성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4. 순수성

순수성은 순결하고 순진하며 순정의 의미를 가지며²⁴⁾, 우아하고 정숙한 여성미와 관련된다.

팜므 파탈 캐릭터에서 순수성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타난다. 부드러운 천과 주름 장식의 원피스 드레스, 단정하고 깔끔한 판타롱 수트 및 투피스는 장식이 배제된 기본적 디자인의 복장으로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신뢰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신앙심을 나타내는 십자가 목걸이 속에 마약을 소지하고 재킷을 벗으면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코르셋 형태의 의상은 팜므 파탈 캐릭터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의상으로 보여준 진실함과 순수함은 순간적으로 돌변하여 악녀적 이미지를 드러내므로써 순수성과 악녀성이라는 캐릭터를 대비시켜 팜므 파탈의 이중성을 나타낸다.

V. 결론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의상을 분석한 결과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은 악녀성, 관능성, 적극성, 순수성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녀성은 위협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수법으로 남성을 파멸시키는 악의 속성으로서 의상에서 검정색과 붉은색, 슬래쉬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불안, 악, 죽음과 관련하여 여성의 욕망의 어두운一面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능성은 육체적 폐감이나 욕망을 자아내는 것으로, 인체를 밀착시키거나 느슨하게 하므로써 성적 부위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의 형태는 피트시키나 느슨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색채는 검정색과 붉은색을, 부드러운 소재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과거 성의식과 성적 표현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여 주체적인 성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성은 권력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여성적 요소에 남성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검정색이나 회색의 테일러드 수트와 바지를 착용하고, 문양과 디테일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상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며 독립적인 여성상을 반영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순수성은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부드럽고 깃털같이 가벼운 원피스, 우아한 수트와 십자가 목걸이가, 그리고 색상은 핑크색과 검정색의 의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상은 천사같고 신뢰성있는 여성미를 보여주지만, 행동과 생각이 순간마다 변하는 악녀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므로써 여성의 나약함과 폭력성, 집착과 갈등이 결합된 양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속 팜므 파탈 이미지는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다. 공포스럽지만 매력적인 팜므 파탈 이미지의 속성은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숨겨진 공포심과 성적 욕망을 표출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화를 통한 팜므 파탈 이미지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성 이미지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난 팜므 파탈 이미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영화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적으로 요구된 팜므 파탈 이미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코데를로 드 라끌로(Choderlos de Laclos)의 원작 소설 <위험한 관계(Les Liaisons Dangereuses), 1782>는 시

대배경을 달리하여 6편의 작품으로 영화화되었다. 그 중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1999>을 본 연구의 주 자료로 하고, 구입 가능 한 영상을 3 편을 중심으로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영화 제목	상연 년도	감독	팜므 파탈 캐릭터의 이름	자료사용 여부
1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1999	로저 캠블	캐더린	본 논문의 주자료
2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2	2000	로저 캠블	캐더린	보조자료
3	위험한 관계	1988	스티븐 프리어즈	메르퇴유 부인	보조자료
4	스캔들-조 선남녀상열 지사	2003	이재용	조씨 부인	보조자료
5	위험한 관계	1959	로제 바딤	메르퇴유 부인	현재 구입 불가능한 자료임
6	발몽	1989	밀로스 포먼	메르퇴유 부인	현재 구입 불가능한 자료임

-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3) 시사 앤리트 영한사전 (2000). 시사영어사.
- 4) Collins Cobuild 영영사전 (2001). Harper Collins Publishers.
- 5) 이명옥 (2003). 팜므 파탈. 다빈치, p. 255.
- 6) 김지영, 간호섭 (2004). 영화 '시카고'의 의상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이미지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p. 19.
- 7) 이미선 (2003). 슈토름의 '하더스레푸후스에서의 잔치' 연구-팜 파탈, 팝 프라길 그리고 남성의 여성성. 독일 문학, 85(0). 한국독어독문학회, pp. 114-115.
- 8) 이화진 (1998). 팜므파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 문학과 석사학위논문. p. 1.
- 9) 권수현 (2005). 팜므파탈의 도상 연구 -영화의상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27(0), 한국영화학회, pp. 11-26.
- 10)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 63.
- 11) 이화진. 앞의 논문, p. 4.
- 12) 스테판 랭던(Stephen H. Langdon)에 따르면 릴리트는 남자를 유혹하는 아름답고 부도덕하며 음탕한 미 혼의 장녀를 가리키는 히브리계의 이름이다. 권행가 (1995).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레이디 릴리트> 연구, 미술사연구, 9, p. 36.
- 13) 구스타브 클림트(Gustave Klimt): 1862-1918. 아르누보 시대의 작가인 클림트는 세기 전환기의 여성 미학의 변화와 함께 에로티시즘을 강하게 띠는 그림을 남겼다. 개인적인 매력, 마력 등의 특성이 중요시되고 여성의 에로틱한 표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육감적이고 감미로우나 퇴폐적인 암시를 띠는 작품들을 그렸다. 임현주 (2004). 앞의 논문, p. 43.
- 14) 비어즐리(Beardsley, Aubrey Vincent): 1872-1898. 비어즐리는 아름다우면서도 병적인 선묘(線描)와 혹

백의 강렬한 대조로 여성의 농염하고 유혹적이며 퇴폐적인 세기말의 미학을 담아 새롭게 탄생시켰고, 이 양식은 아르누보 예술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

- 15)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 1826-1898. 상징주의 화가로 유명한 그는 살로메를 통해 이국적인 에로티시즘과 뇌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구스타브모로외에도 상징주의 화가인 클림트, 비어즐리는 팜므파탈을 대표할 수 있는 살로메, 유디트, 릴리트를 많이 그렸다.
- 16) 권행가 (1995). 앞의 논문, pp. 36-114.
- 17) 문혜경, 김민자 (1998).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한국복식학회, 41(0), p. 211.
- 18) 이정미, 조진숙 (2006).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p. 73.
- 19) 임현주. 앞의 논문, pp. 67-69.
- 20) 문혜경, 김민자 (1998). 앞의 논문, p. 212.
- 21) 김현정, 양취경 (2005).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의상 비교 분석연구. 한국복식학회, 55(4), p. 116.
- 22) 네이버 국어사전.
- 23) 전자한컴사전 (2005).
- 24) 전자한컴사전 (2005).